

성과기반군수(PBL) 적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최 석 철*

Choi, Seok-Cheol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for weapon systems to manage the logistic support for the better combat readiness. Therefore, in this paper we review the issues of logistic support and suggest alternatives to effectively manage the logistic support for weapon systems by using performance based logistics, especially during operations and support phase.

주요기술용어(주제어) : Performance Based Logistics(성과기반군수), Performance Based Agreement(성과기반협약), Contractor Logistics Support(계약업체 군수지원), Acquisition Category(획득사업종류)

1. 서론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과거 국외도입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많은 수의 무기체계를 획득하여 운용하고 있다. 과거의 경우 운용 및 정비기술을 포함한 각종 기술 측면에서 볼 때 국외도입을 통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부대가 방산업체 보다 앞서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해당 무기체계를 개발해서 양산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군보다 더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정비인력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무기체계에

에 대한 군수지원을 하는 민군협력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군협력에 의한 군수지원에는 아웃소싱(Outsourcing)과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CLS : Contractor Logistics Support) 등이 있다. 민군협력은 군수인력 부족과 기술적 문제점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적의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민군협력에 의한 군수지원이 방산업체의 정비활동과 같은 용역의 구매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방산업체는 증가된 정비활동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할 것이고, 군의 관점에서는 정비활동에 대한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가용시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운용가용도(Operational Availability)가 저하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기체계의 전투준비태세 또한 저하될 수 있다.

미군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군협력을 실시함은 물론 전투부대(전투원)가 요구하는 전투준비태세 수준확보를 위해 운용가용도와 임

† 2008년 1월 28일 접수~2008년 3월 7일 게재승인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주저자 이메일 : scchoi@kndu.ac.kr

무신뢰도 등 성과척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전투부대(전투원) 중심의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과기반군수(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기반군수를 포함하여 미국의 군수지원체계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군수지원 실태진단을 통하여 군수지원분야에 성과기반군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성과기반군수 개요

성과기반군수는 전투준비태세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수지원성과를 통합하기 위해 설계된 패키지를 획득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지원하는 전략으로 정의된다. 즉, 성과기반군수는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위하여 통합된 군수지원 성과(Performance)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군수지원성과는 전투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와 임무수행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운용가용도(Operational Availability), 운용신뢰도(Operational Reliability), 부품 사용비용(Cost Per Unit Usage), 군수 반응 시간(Logistics Response Time), 군수소요(Logistics Footprint) 등이다. 이러한 성과는 임무수행 가능 정도(Mission Capable Rate), 출격률(Sortie Generation Rate), 작전임무수행 중 고장간 평균시간(Mean Time Between Operational Mission Failure) 등과 같은 측정가능한 척도(Metrics)로 발전시켜, 그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군수지원성과에 따라 군수지원을 담당한 계약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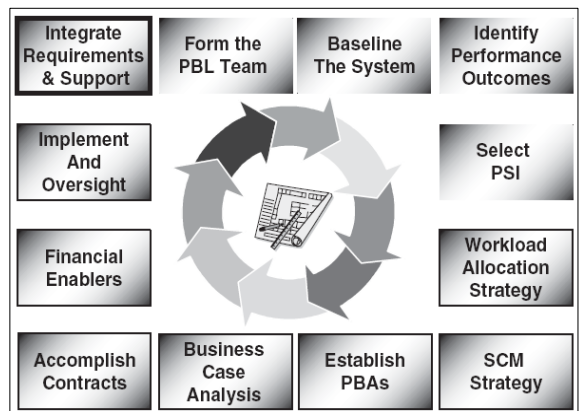
성과기반군수와 기존의 지원전략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존의 지원전략은 거래를 관리(Transaction Management)하는 반면, 성과기반군수지원은 군수지원 측면에서의 성과를 관리(Performance Management)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계약업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되어야 하는 성과를 책임으로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Incentive) 혹은 불이익(Penalty)을 준다.

성과기반군수의 목적은 전투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기체계의 가용도와 신뢰도

를 향상시키고, 군수소요(Logistics Footprint)를 감소시켜 군수 반응시간과 군수비용을 절감시킨다. 또한 계약자로 하여금 최선의 품종관리(Best-of Breed Management)와 기술투자를 증가시켜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단종품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성과기반군수의 특징은 대상기간이 평시와 전시를 포함한 전수명주기라는 것과 계약 대상이 개별적인 수리부속 혹은 용역이 아닌 성과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성과기반협약(PBA : Performance Based Agreement)을 통해서 전투부대(전투원), 사업관리팀(사업관리자)(PM : Program Manager), 군수지원통합팀(PSI : Product Support Integrator), 군수지원제공팀(PSP : Product Support Provider)의 책임이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성과기반군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개발과 수행을 위한 초기단계, 계획단계, 집행단계, 통제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이 12가지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림 1] 성과기반군수 수행모델(PBL Implementation Model)^[1]

초기단계에서는 군수지원 요구조건과 지원사항을 통합하고, 성과기반군수팀을 만들며, 시스템의 기준을 설정하는 활동을 한다. 즉, 성과기반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한 기초 활동이 이루어진다.

계획단계에서는 군수지원성과 목표를 식별하고, 군수지원통합팀을 구성하고, 업무할당 전략 수립, 효과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공급사슬관리(SCM : Supply

Chain Management)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하여, 성과 기반군수에 관련된 전략을 수립한다.

집행단계에서 성과기반협약(PBA : Performance Based Agreement)을 체결하고, 경영실태분석(BCA : Business Case Analysis)을 실시하여, 성과기반군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이 단계에서 성과기반군수 수행의 핵심사항인 성과기반협약과 경영실태분석이 이루어진다.

통제단계에서는 재정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과 감독을 실시하여 군수지원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군수지원통합팀과 군수지원공급팀에게 부여한다.

3. 미군의 성과기반군수 적용 사례

가. 성과기반군수 적용 현황

미군은 2005년 기준으로 전시지원을 포함한 정비분야에 810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였고, 군과 민간업체의 정비인력 659,000여명을 활용하였다. 또한 2006년 운영 및 유지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수준이며, 연간 운영유지 전체예산 중에서 육군은 약 40%, 해군 및 공군은 각각 30% 수준이다. 연간 운영유지를 위한 전체예산은 조달 및 연구개발에 소요된 예산의 합과 비슷하다. 즉, 무기체계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예산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용 및 유지비용은 1,311억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운영유지단계에서의 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투부대(전투원)에 높은 전투준비태세와 운용가용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군은 지원전략의 혁신을 위하여 1999년과 2000년에 21세기의 새로운 군수지원환경에 대비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육군(M1전차, 크루세이더, AH-64 등), 해군(이지스함정, H-60헬기 등) 그리고 공군(F-117, B-1B, F-16 항공기 등)에서 각 10개의 시험사업을 선정하여 총 30개 사업을 전투부대(전투원) 중심의 군수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과기반군수의 전신이 되었다^[2-3].

이러한 노력을 거치면서, 표 1과 같이, 미군은 2006년 기준 육·해·공군 총 215건의 사업에서 성과기반

군수를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예정이다. ACAT I 과 ACAT II*의 사업 215건 중 86건의 사업에서 성과기반군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68건의 사업에서 성과기반군수를 적용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미군의 경우, 해군에서 성과기반군수를 적용하고 있는 건수가 전체에서 40%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06년 기준 성과기반군수 적용 현황^[4]
(단위 : 건수)

구분	ACAT I & II 총사업	PBL 수행 사업	PBL 계획 사업	ACAT I & II 중 PBL적용사업
미육군	60	18	28	46
미해군	85	35	23	58
미공군	70	33	17	50
계	215	86	68	154

나. 성과기반군수 적용 사례

운영유지단계에서 무기체계의 군수지원성과를 여러 가지 요소로 나타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투준비태세 측면에서는 가용도(Availability)이고, 물류체계 측면에서는 군수반응시간(LRT : Logistics Response Time)이다.

미 해군의 경우, 성과기반군수의 성과를 가용도와 군수반응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성과기반군수를 적용한 효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과기반군수를 통해 나타난 효과로서, 무기체계 가용도는 성과기반군수를 적용하기 전보다 평균 30~40% 향상되었으며, 군수반응시간은 성과기반군수를 적용하기 전보다 70~80% 단축되었다.

* ACAT는 Acquisition Category의 약자이며, 미군에서 획득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ATAT I 은 주요 국방획득사업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비용이 3억6500만 달러 이상 되거나 조달비용이 21억9000만 달러 이상 되는 사업을 뜻하고, ACAT II는 그 사업규모가 ACAT I 에 못 미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비용이 1억4000만 달러 이상 되거나 조달비용이 6억6000만 달러 이상되는 사업을 뜻한다.

[표 2] 미 해군의 성과기반군수 적용 효과^[5]

구분	성과기반군수 사업	PBL 적용전	PBL 적용후
장비가용도	F-14 LANTIRN	75%	90%
	F/A-18	62%	85%
	H-60 Avionics	71%	85%
	F/A-18 Store Mgmt System	65%	98%
	Tire Supply Chain	70%	85%
	APU	65%	90%
	AEGIS	65%	95%
군수반응시간	F-14 LANTIRN	56.9일	5일
	ARC-210	22.8일	5일
	H-60 Avionics	52.7일	8일
	F/A-18 Store Mgmt System	42.6일	본토 : 2일, 해외 : 7일
	Tire Supply Chain	28.9일	본토 : 2일, 해외 : 4일
	APU	35.0일	6.5일

이외에도 미 육·해·공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성과기반군수지원의 사례는 여러 가지 있다. 그리고 성과기반군수의 형태도 F-117과 같이 전체체계 성과책임(TSPR : Total System Performance Responsibility), 해군 항공기 타이어의 계약자운송 체계(CDS : Contractor Delivery System) 등 다양하다.

4. 국내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실태

가.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계약업체군수지원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계약업체군수지원(ICS : Interim Contractor Support)과 수명주기 계약업체 군수지원(LCCS : Life-Cycle Contractor Support)으로 나뉜다. 일시적인 계약업체군수지원은 사전에 결정된 기간(일반적으로 3년을 초

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동안 군을 지원하는 체계이며, 최초 야전배치를 위한 계약업체지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수명주기 계약업체 군수지원은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군수지원을 지속시킬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 시스템 군수지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수명주기 계약업체 군수지원과 일시적인 계약업체 군수지원의 차이점은 수명주기 계약업체 군수지원은 지원개념에 가까운 반면, 일시적인 계약업체 군수지원은 무기체계 획득분야에 가깝다. 미군에서는 통상 일시적인 계약업체 군수지원의 경우 무기체계 획득비에서 지불되고, 수명주기 계약업체 군수지원의 경우는 운영유지비에서 지불된다^[6].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에 대하여 방위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6.28)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에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방위사업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65호) 제295조에는 “적용기간을 3년 이내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국방부훈령 제874호, 2008.2.29)에는 적용기간을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또는 소요군 군수지원능력 확보시까지의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일시적인 계약업체 군수지원(ICS)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나, 앞으로 군에서 활용되어야 할 수명주기 계약업체 군수지원(LCCS) 적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사례

국내에서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사례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사업은 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의 M270A1 개량형 발사대에 대한 사업이다. M270A1 개량형 발사대에 대해서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M270A1 개량형 발사대는 사격통제장치와 발사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의 기술로는 정비지원이 제한되고, 관련 정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개량형 발사대에 대한 군수지원중 정비지원 방법은 표 3과 같

이 일반적인 5계단 정비가 아닌 3계단 정비가 적용되었고, 야전정비부대에 계약업체 야전기술팀(CFT : Contractor Field Technician)이 상주하여 정비 지원을 실시하였다.

개량형 발사대에 대한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의 경우, 계약기간은 총 3년이며, 2차에 걸쳐서 계약을 하였다. 1차 계약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이고, 2차 계약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로 하였다. 계약방법은 최초 고정계약(Firm Fixed Price)에서 차후에 원가보상이윤확정계약(Cost Plus Fixed Fee)으로 전환하였다.

[표 3] M270A1정비에 적용된 3계단 정비^[7]

구 분	정 비 업 무
전투부대	• 고장발견, 정비요청, 예방정비
야전 정비부대	• CFT상주 정비/기술지원 • 고장부품 후송, 복귀, 정비교육
업체	• 후송부품 검사/수리, 최신기술전파 • 수리부속 저장관리

해당장비에 대한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을 적용함으로써 얻은 가장 큰 효과는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비방식을 채택한 기본형 발사대는 고장수리에 약 12~18개월이 소요되었으나, 개량형 발사대는 2~3개월만이 소요되고 있다.

5. 성과기반군수(PBL) 적용방안

가. 제도적인 측면

성과기반군수는 뛰어난 민간의 기술력과 경영구조를 군에서 활용한다는 민군협력의 특징을 갖고 있어, 우리군에서 성과기반군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군협력군수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민군협력군수지원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최상위 법령은 방위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6.28)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에는 “③ 소요

군이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95조(방산업체 등에 의한 군수지원)에는 이 내용을 세분화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년 이내”이라는 기한을 규정하였고,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국방부훈령 제874호, 2008.2.29) 제225조(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또는 소요군의 군수지원능력 확보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현재 법령에서는 계약 관련법을 포함하여 성과기반군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현재 법령에 기초하여 사업관리를 실시한다면 우리군에서는 성과기반군수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종 법령에 계약사항을 포함하여 민군협력군수지원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에서도 계약업체 군수지원을 성과기반군수로 발전시켜 포함해야 된다.

성과기반군수는 군수지원성과의 증가에 따라 군수지원업체의 이익이 향상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의 군수지원성과는 지원한 물량이 아니라 가용도와 같은 전투부대(전투원) 중심 성과척도를 뜻한다. 미국에서는 성과기반군수계약이 주로 확정계약(Fixed Price)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여기서의 확정계약은 수리부속의 양과 서비스의 양에 대한 확정계약이 아니라 가동시간 혹은 운용시간에 대한 확정계약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계약제도를 계약방법 기준으로 분류하면 4가지의 확정계약(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유인부확정계약)과 5가지의 개산계약(한도액 계약, 중도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이 있으나, 군수지원성과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계약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성과기반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시행령을 수정하고, 하위법령(방위사업법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이와 같은 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1항에서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할 경

나. 조직적인 측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통합사업관리팀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은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합참 및 소요군의 인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인원편성은 획득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현재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획득단계 통합사업관리팀은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는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양산단계 이후 운영유지단계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지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단계에서도 국방부(소요군)를 중심으로 한 통합사업관리팀(운영유지)을 구성하여 활용하면, 무기체계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미 육군의 경우 지원성통합관리팀(S-IPT : Supportability Integrated Product Team)을 구성하여 무기체계 지원의 임무를 수행한다^[8].

통합사업관리팀(운영유지)을 구성하여 활용하면, 무기체계 획득단계부터 운영유지단계까지 동일한 인원에 의하여 군수지원요소가 개발되고, 관리팀에 따라 군수지원의 측면에서의 전체 수명주기 체계관리(TLCSM)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획득단계 통합사업관리팀에 편성되었던 방위사업청 종합군수지원(ILS) 인원과 소요군의 종합군수지원(ILS) 인원이 운영유지단계 통합사업관리팀에 편성되어야 군수지원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다. 국방부(소요군) 중심의 운영유지단계 통합사업관리팀이 운영된다면 운영유지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부품

국산화와 부품단종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술적인 측면

성과기반군수지원은 방산업체의 기술과 효율성을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므로 성과기반군수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군수지원체계의 성숙도와 방산업체의 기술축적 정도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미국의 국방획득대학에서 발간한 획득지침서(Acquisition Guidebook)에서는 성과기반군수 성숙도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의 적용 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과기반군수의 성숙도에 따른 분류법으로 우리군의 성과기반군수 적용방법을 제시하면, 1단계(성과기반군수 대상품목: 부분품) 혹은 2단계(성과기반군수 대상품목: 구성품, 군수지원제공팀의 임무: 물류) 수준이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군은 아직 성과기반군수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충분한 연구활동도 없었으며, 제도적으로도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방산업체의 기술축적 정도 관점에서 성과기반군수 적용 대상을 판단할 경우, 구성품 수준의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방산업체에서 만든 무기체계도 국내 업체의 기술로 만든 국산화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수준의 군수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후에 각종 환경과 조건이 성숙되는 대로 3단계(성과기반군수 대상품목: 체계 수준)와 4단계(성과기반군수 대상품목: 플랫폼 수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성과기반군수 적용이 바람직한 분야는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사격통제장치, 전자전 장비, 통신, 항공전자장비와 같이 다품종 소량 생산된 분야이며,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군에서 정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부품의 조기 단종 및 소프트웨어 진부화 속도가 빠른 장비이다. 이러한 장비중 일부는 현재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될 수 있다. 앞으로 성과기반적도가 개발되고, 이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면, 성과기반군수를 적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8050호, 2006.10.4)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 내용, 범위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범위 등) 1항에서는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당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유인부확정계약,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 특정비목 불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 총 9종류의 계약을 지정하고 있다. 성과기반계약(가칭)의 경우 방위사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령체계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6. 결론

21세기 우리군의 전체 병력규모는 축소되지만, 최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을 통한 최상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정비를 포함한 군수지원인력은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의 기술과 인력 그리고 시설을 국방군수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우리군에서도 성과기반군수라는 군수지원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군에 적합한 군수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기반군수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제도 및 조직을 정비해야 하며, 필요한 인원에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군에 성과기반군수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제도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성과기반군수를 군수지원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국방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서도 전투부대 측면에서의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군운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Performance Based Logistics : A Program Manager's Product Support Guide", 2005. 3.
- [2] Lou Kratz, "Achieving Logistics Excellence through Performance Based Logistics", Logistics Spectrum, p. 13, 2001. 10.
- [3] Davis Berkowitz 외 3명 "Defining and Implementing Performance Based Logistics in Government", Defense Acquisition Review Journal, pp. 257~258, 2004. 12.
- [4]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data as of July 2006.
- [5] Paul Klevan, "Performance Based Logistics", UID Program Manager Workshop, 2005. 5.
- [6] 미 육군성, "Army Regulation 700-127(Integrated Logistics Support, Chapter4 Contractor Logistics Support", 2005. 12.
- [7] 김병규 외 2명, "MLRS 계약업체 군수지원제도 적용성과 고찰", 제14회 지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육군본부, 2003.
- [8] US Army, Army Regulation 700-127, p. 18, 2005. 12. 19.